

민주당 “뒤집기” vs 국민의힘 “굳히기”

민주 “부도덕한 국민의힘 후보들에 민심 돌아서...박빙 싸움 될 것” 국민의힘 “사전투표율은 정권 심판...내부 여론조사서 승기 잡아”

여야는 4·7 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5일 지지층 결집을 위해 힘을 모았다. 특히 역대 재보선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막판 뒤집기’, 국민의힘은 ‘굳히기’로 각각 해석하면서 본투표에서의 승리를 자신했다.

민주당은 바닥 민심이 바뀌고 있다며 이번 재보선이 ‘박빙’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전투표율 상승을 민주당 지지층 결집의 결과로 보고 지지층을 향해 역전승의 자신감을 갖고 투표장에 나와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김태년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선대위에서 “국민의힘은 1년 임기의 서울, 부산시장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의혹투성이 엉터리 후보를 공천했다. 공직자의 기본 덕목은 정결과 정직이다”면서 “공직후보자의 거짓말은 허위사실 공표로 명백한 선거법 위반행위입니다. 박형준 후보의 비리 의혹은 파도 파도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기본이 안 된 최악의 후보를 선택하게 되면 국민이 불행해지고 나라가 과거로 퇴행하게 된다”며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승부는 투표가 끝나는 순간에 판가름 날 것”이라며 “한 표 한 표가 더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분노한 민심에는 몸을 낮춰 ‘반성하고 고치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강조하는 한편 각종 의혹이 제기된 야당 후보들과 대비되는 여당 후보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부각하고 나섰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끝난 뒤 “후보 검증이 본격화되면서 중도 성향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박영선, 김영춘 후보로 회귀하고 있다”며 “결국은 1% 싸움으로 갈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오후 강서·금천·관악·동작·영등포 등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을 찾

아 유세하며 지지층을 끌어모으는 데 집중했다. 이 위원장과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박 후보의 관악·영등포 유세에 함께 한 뒤 각각 은평, 강북에서 박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내부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서울·부산 모두 ‘승기’를 잡았다고 자체 판단하고 있다. 여당의 각종 의혹 제기를 ‘네거티브’라고 규정하면서 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중·장년층을 투표장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분노한 민심을 더 자극하는 모습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분노의 표시”라며 “여당은 네거티브 전략만 쓰는데, 유권자가 그런 것에 속을 정도로 바보가 아니다. 남은 이틀간 특별한 변수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후보는 이날 마지막 방송 토론에 이어 양천·강서·영등포·동작·송파·강동구 등 한강 이남 지역을 돌며 강행군을 펼쳤다. 막강한 민주당 조직력에 ‘맨투맨’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오 후보는 이를 남은 선거운동 기간 ‘스마일 모양’을 그리면서 유세를 한다. 당선되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활짝 웃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한다.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오 후보가 가지 못하는 지역구를 중심으로 유세전을 펼친다. 김 위원장은 관악·마포구에서, 안 대표는 은평구에서 각각 현장 유세를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문 대통령-김정숙 여사, 식목일 나무 심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5일 마포구 서울북한화력발전소에서 열린 제76회 식목일 기념행사에서 상지초등학교 어린이들과 나무를 심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본, 국회의원 투기 조사 착수

조사 대상 10명...5명 고발인 조사 마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국회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단장인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국회의원 5명과 관련해 지난 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조사 내용을 토대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부동산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국회의원 본인 조사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수본의 조사 대상인 국회의원은 총 10명이다. 고발·진정이 접수된 국회의원은 5명이고 고발된 국

회의원 가족은 3명이다. 또 다른 국회의원 2명도 투기 의혹으로 고발당했지만, 확인 결과 이들은 직권남용 등의 상황에 해당해 부동산 투기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특수본은 전했다.

최 국장은 “부동산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2건의 고발인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며 “국회의원 가족 3명에 대한 고발인·진정인도 곧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임 시절 아내 명의로 세종시 땅을 매입한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와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모바일 기기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며 “아직 사법처리를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배우자 명의 부동산 사회 환원”

정현복 광양시장 입장 밝혀

부동산 개발로 이해 충돌 의혹을 받는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이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시장은 5일 “부동산 사회 환원 관련 입장문”을 내어 “배우자 명의의 진월리 신구리 땅을 사회에 환원코자 한다”며 “매각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서 전액을 어린이보육재단과 백운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땅은 정 시장의 부인 A씨가 진월리 신구리에 소유한 3필지이다. 광양시는 지난해 1월부터 진상면 금이리와 진월면 신구리를 잇는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을 추진 중인데, A씨의 땅이 있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與 “이해충돌방지법, 10일 무산되면 단독처리 불사”

더불어민주당은 5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과 관련, “10일 해당 상임위에서 야당의 소극적 태도 등의 이유로 무산되면 단독 처리도 불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중앙선거대책위 브리핑에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10일까지는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를 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이 있었고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동의하는 방침”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중앙선대위에서 “공직자가 투기 근처에도 다가가지 못하게 만들고 이해충돌방지법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 추구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달 말까지 소위를 열고 합의 처리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민형배, 식목일 4월 5일 → 3월 20일 변경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 국회의원은 “4월 5일인 현행 식목일을 나무 생육의 적합한 시기에 맞추기 위해 3월 20일로 변경하는 산림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식목일은 1946년 4월 5일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국가 공휴일을 줄이면서 2006년 식목일은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식목일은 법이 아닌 국무총리 훈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식목일의 날짜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산림과학원이 1990년

대 중반부터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나무 심기에 가장 알맞은 온도는 6.5도다.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의 2~4월 일평균기온이 높아지면서, 한국은 3월 중순에 이미 일평균기온이 6.5도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식목일 날짜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에 시민들 10명 중 8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남 “농업용수 개발 등 1348억원 예산 확보”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5일 “고흥·보성·장흥·강진지역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배수개선사업,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사업비 134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배수개선사업 신규착수 대상지구로 선정된 ▲고흥 도덕면 신양지구(총 사업비 191억 원) ▲보성 득량면 안심지구(105억 원)와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선정된 ▲고흥 점암면 강산지구(59억 원) ▲장흥 대덕읍 가학지구(160억 원)는 농경지 상습 침수 피해구역으로 지역민들의 지속

적인 민원이 발생했던 곳이다. 이번 사업으로 영농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신규착수 대상지구에는 ▲장흥 용산면 상금지구(총 사업비 324억 원)가 선정됐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는 ▲강진 칠량면 삼흥지구(총 사업비 49억 원) 등이 올해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오광록 기자 kroh@



토지, 건물, 정원수(아파트용) 매매

1.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 9,190㎡
소나무 15년생 외 7종 2천여주 아파트 조경수 포함, 광주 간 25분 신설 4차선 국도 근접.
전원주택, 펜션, 다목적 용도가, 포장도로 접 ㎡ 7만원

2. 상가건물

- (1) 광주. 북. 오치 4층 대 384㎡ 연 998㎡ 사거리 코너 요지
매 16억8천만원 보 2억, 월 6백6십만원
- (2) 광주. 동. 충장로5가 상업지역 도매상 주도로 5층 승강기 유, 대 222㎡ 연 956㎡
보 8천만원 월 4백만원 가, 매 13억원 전면 18m 접
- (3)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야시장 주도로 코너 점포 8간, 대 238㎡ 연 257.8㎡
주변 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 중, 투자 효과 최상 매 9억9천 보 1천6백 월 2백만원, 상업지역
- (4) 광주. 북. 문흥동 3층 상가 대 660㎡ 연 2,000㎡ 상업지역 1층점포 10간
매 51억원 (보 5억5천만원 월 2천2백만원 포함)

3. 전원주택, 가든, 카페 등 용지

- (1) 순창 금과 고례리 광주간 25분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대지 1,163㎡(담 포함) 건물 66㎡
벽돌조 스라브층, 수리사용가, 산아래 마을 뒷 야마산 바라본 정남 매9천9백만원
- (2)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가로수길 약 70m 접, 계획관리지역
전 4,363㎡ (담 포함), 덕진산자락 정남 경관수려 ㎡ 13만원
- (3) 화순 북면 옥리 금호온천 입구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전 531㎡ 매 ㎡ 18만원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중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출플러스 길 건너면 통광주빌딩 내

대인동 싼 빵

- ▶ 동구 롯데백화점 근처
 - ▶ 대지 515㎡(구. 156평), 중심상업지역
 - ▶ 오피스텔 허가 득, 타용도 변경 가능
지하1층, 지상9층, 64호실, 47㎡
 - ▶ PF 28억 가능
 - ▶ 매매 - 21억원, 일시불 대폭 조정가
- 중개환영. 010-3605-5000

수기동 제일OP

- ▶ 20층 중 8층
계약 108㎡, 전용면적 67㎡
매매 - 1억1000만원
 - ▶ 20층 중 20층
계약 252㎡, 전용면적 142㎡
매매 - 3억3천만원
- ※ 사무실 전용, 코너, 주차 편리
문의. 010-3605-5000